

사고 조작·고의 교통사고 급증...보험금 빼먹기 혈안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보험사기 근절하자

<상> 광주 교통사고 보험사기 증가

광주지역 보험사기 범행이 감소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기관이 주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보험사기 적발 건수와 피해금액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20년 111건, 2021년 285건, 2022년 170건, 2023년 95건으로 해마다 100~200건에 달한다.

피해금액은 2020년 74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33억원으로 줄어드는 듯 했으나 지난해 43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전국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

원에 따르면 전국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0년 8986억원→2021년 9434억원→2022년 1조 818억원→2023년 1조 1164억원으로 지속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적발 인원 또한 2021년 9만 7629명, 2022년 10만 2679명, 2023년 10만 9522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고의 사고를 내는 사례가 급증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보험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771억원 증가, 16.4%) 사기가 크게 증가했고, 사기유형별로는 허위사고(210억원 증가, 11.0% ↑) 및 고의사고(47억원 증가, 3.0% ↑)가 증가했다.

적발인원으로 보면 사고내용 조작, 고의사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사고내용 조작으로 적발된 인원은 2021년 6만 5150명, 2022년 6만 9786명, 2023년 7만 1582명으로 늘었다.

특히 자동차 사고 운전자, 피해물, 사고일자 등을 조작 및 과장한 사례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1년 1만 9737명, 2022년 1만 9405명, 2023년 2만 3414명 등이다.

광주 보험사기 매년 100~200건 65차례 고의사고로 보험금 타고 사망보험금 노리고 명의 위조도 의심사례 신고 등 경각심 가져야

고의 사고를 냈다가 적발된 인원도 2021년 1만 2103명, 2022년 9967명, 2023년 1만 154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허위 사고를 낸 경우는 2021년 1만 5854명, 2022년 1만 8581명, 2023년 1만 8469명 등으로 줄지 않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 적발 인원이 급증하는 추세다. 적발 인원 중 30대는 2021년 1만 6369명, 2022년 1만 7525명, 2023년 2만 69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40대 또한 2021년 1만 8898명, 2022년 1만 9968명, 2023년 2만 2015명으로 급증했다.

당장 지난 1월 광주지법은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장인·장모의 명의를 위조한 A(4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숨진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혼자 수령하기 위해 보험금 대표 수익자 변경 서류를 위조해 공동상속자인 장인과 장모로부터 보험금 청구 수령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꾸미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험사로부터 걸려온 확인 전화를 받게 해 장모처럼 행세하게 하는 수법으로 아내의 사망보험금 1억 3000여 만원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9월에는 광주지검은 좌회전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낸 B(23)씨 등 일당 10명을 검거해 3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탐을 꾸려 2차로에서 수차례 좌회전을 반복하다가, 1차로에서 좌회전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 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65회에 걸쳐 6억원 상당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B씨에 속아 사건을 종결 처리했지만 검찰이 '지난해에만 세 차례 사고를 당했다'는 B씨 진술에 주목하면서 들뜸이 났다.

60대 이상 노인의 사례도 급격히 늘었다. 2021년 1만 9373명, 2022년 2만 2747명, 2023년 2만

4768명으로 전체의 22.6%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 분석에 따르면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고의충돌 31.0%, 음주·무면허운전 14.5%)가 많은 반면,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허위입원 등 18.8%)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줄지 않는 이유는 최근 고물가로 인한 경제악화와 접근성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물가로 지갑이 닫히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아프지도 않으면서 치료를 받기는 쉽지만 교통사고는 흔하다는 점에서 사고를 내고 보험금 편취에 접근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정수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보험사뿐 아니라 전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뿐 아니라 전국민이 보험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기 의심사례를 적극 신고하는 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성 교육 수업 노출 영화 든 교사 징계 2심도 "정당"

성 교육 수업에서 신체 노출 장면이 담긴 프랑스 단편영화 상영 등으로 논란이 돼 정적 처분을 받은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양영희)는 A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학 1·2학년반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수업에서 영화 '여압당하는 다수'를 상영했다.

이 영화는 남녀가 역할을 바꾸는 방법으로 성 불평등을 고발한 10분짜리 단편이다. 여성계에선 김

증받은 작품이지만 신체 노출과 대사, 설정 등이 중학생한테 적합한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시교육청은 정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피해자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학교장의 분리조치에 응하지 않은 점, 수업대상인 학생들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교육 공무원의 신뢰를 저해할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사유가 있다"면서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학교 내 교직원 학생에 대한 성희롱 행위 근절과 공적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해당 교사가 입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보다 크다"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

법원 "레드카드 준 담임 8차례 교체 요구한 학부모 교권 침해"

학부모가 아들에게 '레드카드'를 준 담임교사 교체를 수차례 요구한 것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양영희)는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의 아들 B군은 2021년 4월 20일 초등학교 2학년 당시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음을 냈다.

담임인 C교사는 B군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자 페트병을 뺏은 후 B군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이고 방과후 교실 정소를 시켰다.

A씨는 '아동학대다. C교사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며 학교측에 모두 7차례에 걸쳐 담임교체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C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

과성 완전 기억상실 증세로 입원하기도 했다.

학교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반면 항소심에서는 A씨의 청구를 인용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사건이 넘어갔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상고심에서 '적법 자격을 갖춘 교사가 하는 학생에 대한 교육 관련 판단과 교육 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면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학기 중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해당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인사 상으로도 불이익한 처분이다. 설명 담임 교사의 교육법에 문제가 있었다도 구체적인 해결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고물가에 소규모 장터 인기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소상공인들이 마련한 장터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15일 광주 시 동구 선교동의 한 카페 앞 마당에서 열린 의류,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광주지역 소상공인 장터에 시민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연 120% 이자' 고리대금업자 구속 송치

욕설·협박에 직장 찾아가 행패도

불법 고리 사채업을 하며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악랄하게 불법 추심한 40대 고리대금업자가 구속송치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40대 A씨를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담양에서 등 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6배 가량 높은 연 120% 이자를 받아 챙기거나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떼고 기간내 못갚을 경우 복리로 이

자를 붙여 채권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A씨는 채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거나 집과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채무자의 지인과 가족들에게까지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에도 수 백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 1월 담양에서 A씨에게 돈을 빌린 40대 여성 피해자 B씨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 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없애고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치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생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